

청정성 회복·교구중심제 등 숙제 산적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과제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연 임하게 된 것은 종책의 연속성을 통한 종단 안정이라는 종도들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다. 그만큼 종단 안팎으로 안정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가장 먼저 자승 스님이 풀어야 할 현안은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로 시작돼 내부 고발로 연이은 추문으로 실추된 종단의 청정성 회복이다. 승려 도박 사건 이후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대중공사 등 다양한 대내외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자승 스님은 청정성 회복과 쇄신 결사에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본 의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 일간지 기자들과 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쇄신은 3분요리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종단 청정성 회복과 수행종풍 증진에 대한 자승 스님의 밑그림은 종책 분야별 공약 중 △한국불교의 숨겨진, 청정 수행풍토 진작 △자성과 쇄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승 스님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청구 제정과 총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평생 수행 제도(기초 생활 보장) 연구와 실행 전략 마련을 통해 수행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교화에 힘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호계원 심판의 공정성과 양형 객관성 확보를 비롯해 판례기속원칙을 정립해 종단 위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행동 캠페인으로 확대 전개하고 종단 각계 지도자의 대중공사 정례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자승 스님은 지난 9월 23일 종책 발표회 당시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청정한 수행풍토의 조성"이라며 "수행풍토 조성을 위한 안정적 수행 환경 마련과 계율의 엄중한 수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공약 '교구 중심제' 향방은

자승 스님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내건 핵심 정책 공약은 '교구 중심제'다. 이를 위해 △교구법 제정 및 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교구발전위원회 설립 △주지 인사 교구 이양, 교구인사제도 개선 △직할교구를 우선으로 한 교구분구제 도입 △교구 내 거점사찰 선정 및 조계종지역연합회 활성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은 교구의 사할 전반을 다루는 통합 법령 제정이다. 종헌 제 17조 이하 지방종정법, 교구중회법, 교구중회의원선거법 등의 법령은 교구를 이루는 요소에 대한 부분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통합 법령 제정 내용으로는 △교구 정의와

지역 및 관할권 △교구중회의 구성과 권한 새로이 구성 △교구 행정기구의 편제 방식 변화 △재정 운영 및 기본 원칙 등 세부 규정 마련 등을 담는다는 게 자승 스님의 복안이다.

자승 스님은 종책발표회에서 "미래의 교구는 해당 지역의 수행과 포교, 전법을 총괄하는 진정한 자치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교구 중심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구본사 간 불균형'은 넘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현재 교구본사는 지역별 종무행정 시스템이나 사적이 적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원화된 종무행정 시스템과 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교구 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점도 필요하다.

연이은 내부고발로 악화된 여론

승풍 진작·청정성 해결책 필요

서비스 위주의 행정 개편 공언

포교원 전락·생산형으로 변화

'교구중심제' 공약 실현도 관심사

신도시 비롯한 포교 혁신

교구 중심제와 함께 제시한 것이 신도시 포교이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신도시 지역의 포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자승 스님은 직할 교구를 우선 시행을 전제로 한 교구 분구제 도입과 광역시급 대도시에 포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동 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신도시 사할 건립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자승 스님은 종책자료집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로 갈수록 불교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불교의 포교 공동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동사무소 개원 등 변화하는 포교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감으로서 불교의 도심 포교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착화 된 포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포교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이유도 관리 행정이 외에는 뚜렷한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는 현 상 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승 스님은 포교원 조직 시스템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포교



2007년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직후 용산 참사 피해자의 영정이 모셔진 요셉의 집을 찾아 분향을 올리고 있는 자승 스님. 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행보는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자승 스님의 당면 과제다.

자승 스님이 밝힌 종단 운영 8대 기초

1.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가 종단 운영의 미래입니다.
2.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스님 권익향상으로 종단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자성과 쇄신으로 수행환경개선에 힘써 수행종풍을 진작하겠습니다.
4. 통합종단 출범 이래 최대 불사, 총본산 성역화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5. 종단 예산 1천억 시대 준비, 재정기반 구축은 승가복지 안정의 열쇠가 됩니다.
6. 지속적인 승가 교육 및 포교 혁신으로 세계 속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여내겠습니다.
7. 불교문화를 21세기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8. 서민과 약자를 위한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팀, 전법지원팀, 신도팀 등으로 구성된 부서체계를 포교 정책 개발, 포교 콘텐츠 개발, 계층포교 활성화, 조직 관리팀으로 세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일선 포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전략과 프로그램 제시하고 포교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는 전략형, 생산형 포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회정책 진일보할 수 있을까

자승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재직 당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사회적 의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잇단 사업과 행보들이었다. 노동위원회의 출범은 불모지와 같았던 불교계 노동운동의 초석을 다졌고, 화쟁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회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공식 방문지가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는 점은 자승 스님이 사회 의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 의제에 대한 활동은 워낙 인프라가 전무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침체 일로

를 겪고 있는 불교계 참여 운동형 NG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자승 스님은 기존 위원회와 더불어 주민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을 이뤄나갈 것을 정책 공약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지원법'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회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설립 등 불자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방안이다.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스님들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권익 확대를 위한 정책안을 유력 후보에게 제시하기도 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비구니 관련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해 참종권 확대를 비롯해 비구니부 신결과 특별교구 설립 등을 세부 정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종법 체계 중 비구니 스님 차별 조항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청정 수행가풍 바로 세워주길

동국대 명예 교수 법산 스님



종단의 행정 수반으로서 수행 기강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다. 계정해 삼학에 의한 가풍이 정립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한다. 또한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의 기본이 되는 승려복지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 또한 그동안 선거로 인해 분열된 종도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원장이 되달라. 이를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내려와 사부대중과 소통했으면 한다.

'상생의 내일'을 열어주십시오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첫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한 자승스님은 지난4년 동안 한국 불교 증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 오셨다. 많은 국민들이 총무원장 스님께 거는 기대는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앞으로 우리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저급사회에 자리 잡은 '우리'는 없고 '너와 나' 뿐인 자급의 갈등을 극복해서 화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소통으로 국민신뢰 회복하는 조계종 되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먼저 출재가가 소통이 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중앙신도회도 미력하나마 일조하겠다. 신도들이 스님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내건 여러 가지 종단의 발전방향이 현실화 되고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특히 신개념 종무행정, 재정기반 구축, 불교문화의 21세기 신성장 동력화 등에 신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과도 소통해 국민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또 스님들을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출재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자성과 쇄신을 완성시켜달라

조성택 우리는 선우 이사장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자성과 쇄신 결사'를 완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결사가 용두사미로 결사가 끝난다면 한국불교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식 개혁, 시대에 맞는 청구 제정을 비롯해 화쟁위원회의 이웃종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종교평화선언,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제11교구본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종	민
선	원	중	우	포	교	성	요
총	무	중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신도	회장	이	영
						영	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